



제116주년
현도기념

포덕 162(2021)년 12월 1일

제 116주년

顯道기념



포덕 162년 12월 1일

 천도교중앙총부

차례

식순 03

기념사 04

천덕송_제13장 기념송 10

천덕송_포덕행진곡 12

의암성사 법설_ 권도문 13

현도기념식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전봉독_ 권도문

1. 천덕송 합창_ 제13장 기념송 / 1절-3절

1. 기념사

1. 천덕송 합창_ 포덕행진곡 / 1절-3절

1. 심 고

1. 폐 식

[문화행사]

- 천도교중앙대교당 건립 100주년 기념행사
 - 오케스트라 (코리아콥오케스트라)
- 사인여천 국민화합 문화제

기 념 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암성사께서 은도시대의 동학(東學)을 천도교(天道敎)로 대고천하한지 116주년이 되는 현도기념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동덕들이 시천주(侍天主)의 무극대도를 마음 놓고 신앙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지난날 의암성사를 비롯한 수십만 선열들의 희생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임을 상기하면 실로 숙연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동덕 여러분!

은도시대에 우리 교인들은 무극대도를 신봉한다는 이유 하나로 생명과 재산을 빼앗겨야 했고, 조상 대대로 살던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유리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교인들은 포덕 33년에 공주(公州)를 비롯해서 삼례(三禮), 서울 광화문(光化門), 보은(報恩) 등지에서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대신사의 신원을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끝내 이를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탄압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탄압과 탐관오리들의 지속적인 가렴주구(苛斂誅求)가 도화선이 되어 봉기한 것이 포덕 35년의 동학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일본군의 개입으로 동학혁명마저 무산된 후 해월신사께서도 순도의 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암성사께서는 해외망명을 결심한 끝에 미국으로 가려 했던 계획을 바꾸어 포덕 43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암성사는 권동진·오세창 등 여러 망명객과 교류하는 한편 우리보다 앞서 문호를 개방한 일본을 통해 세계를 관조하면서 낙후된 조국을 개화하는 것이 곧 동학의 신앙자유를 이룰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포덕 45년의 갑진개화운동은 바로 이러한 의암성사의 구상이 현실화된 혁신운동이었습니다. 이 무렵 국내는 ‘집집마다 동학이

요 사람마다 주문을 외운다(家家東學 人人誦呪)’는 기록이 말해주듯 서북지방으로 교세가 급신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세를 바탕으로 의암성사는 이용구(李容九)를 회장으로 진보회(進步會)를 조직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대대적인 민회운동(民會運動)을 전개토록 하였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20여만 교인들은 8월 말일을 기해 꺾기하여 과감하게 흑의단발(黑衣斷髮)을 하고 정부를 상대로 비정혁신을 부르짖으며 전국 360여개소에서 일제히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이 동학당임을 간파하고 즉각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태천(泰川)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살상되거나 체포 구금되는 교인이 속출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진보회장 이용구는 송병준의 회유에 넘어가 자의적으로 진보회를 친일단체인 일진회(一進會)와 합동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용구는 의암성사를 배신하여 배교친일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내 여론이 비등하여 전국 각처에서 일진회는 물론 동학교문까지 친일단체로 매도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용구의 배교친일행위로 교단이 심대한 상처를 입게 되자, 의암성사는 12월 1일을 기해서 ‘도는 비록 천도

이나 학인즉 동학(道雖天道 學則東學)’이라는 경전 말씀에 근거해서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여 신문지상에 15회에 걸쳐 광고함으로써 대고천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창도 이래 억압받던 무극대도가 은도시대에서 탈피하여 현도(顯道)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은도시대의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적 종교체제로 전환하는 천도교 시대를 개막하게 된 것입니다.

의암성사는 4년여의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대고천하 한 달 후인 포덕 47년 1월 5일 부산을 경유하여 귀국하였습니다. 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4만여 명의 교인들이 연도에 나와 귀국하는 의암성사를 열렬하게 환영하였습니다. 지목을 피해 일본에 망명했던 의암성사가 이처럼 당당하게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국내 최대의 종단으로 발전한 교세가 배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귀국하신 의암성사는 2월 10일에 천도교대헌(天道敎大憲)을 공포하고, 2월 16일에 중앙총부를 설치하고, 궁을기를 휘날리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천도교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72개 대교구와 그 산하에 중소교구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교단조직을 정비한 후 정교분리(政敎分離)를 단행하여 송병

준과 이용구 등 배교친일(背敎親日) 두목 62인을 출교 처분함으로써 교단의 친일 누명을 청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천도교가 현도된 지 5년 후에 일제에 강점되는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제는 교육기관과 종교단체를 제외한 국내의 모든 단체들을 강제해산시키고, 언론·출판과 집회를 엄금하는 등,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무단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동학을 천도교라는 종교 명칭으로 현도 함으로써 강제해산의 비운을 면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암성사의 결단이야말로 한울님의 감응에 의한 선견지명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국의 동덕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도기념일을 맞아 교단을 위기에서 기사회생시킨 의암성사의 불퇴전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단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동덕들의 염원인 교단중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제도개선과 아울러 전체 교인들의 정신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덕들은 오늘 현도기념일을 맞이하여 의암성사를 귀감으로 삼아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을 철저히 신념화하고 성경신을 다해 신앙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한울님 앞에 다시금 간곡히 당부하면서 이만 기념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2년 12월 1일

천도교 교령 송 범 두 심고

제13장 기념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올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쯔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쯔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닷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포덕행진곡

1. 우 리 들 - 은 - 개 벽 - 군 신 성 의 특 사
 2. 오 늘 날 - 은 - 포 덕 - 날 십 이 의 월 일 사
 3. 우 리 들 - 은 - 포 덕 - 창 창 생 지 도 자

수 천 운 선 - 생 - 심 법 - 을 계 승 하 여 서
 운 도 교 - 의 - 큰 문 - 을 활 찰 나 열 고 서
 은 수 있 - 는 - 그 사 - 람 만 나 게 되 면

온 천 하 에 천 덕 을 넓 게 넓 게 퍼 리 라 온 천 하 에 천 덕 을 넓 게 넓 게 퍼 리 라
 살 길 찾 는 창 생 을 길 - 인 도 하 - 자 살 길 찾 는 창 생 을 길 - 인 도 하 - 자
 시 운 시 변 의 논 하 고 삼 - 칠 자 전 - 해 시 운 시 변 의 논 하 고 삼 - 칠 자 전 - 해

포 - 덕 - 은 - 우 리 들 의 천 직 이 로 다
 몸 과 마 - 음 - 다 바 - 처 포 덕 을 하 자
 당 당 정 - 리 - 밝 히 - 어 포 덕 을 하 자

포 - 덕 - 은 - 우 리 들 의 천 직 이 로 다
 몸 과 마 - 음 - 다 바 - 처 포 덕 을 하 자
 당 당 정 - 리 - 밝 히 - 어 포 덕 을 하 자

[권 도 문]

「도」란 것은 사람이 한갓 지켜서 사업만 할 뿐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체득하여 어김이 없게 함이니, 어찌 삼가지 아니하리오.

사람이 세상에 남에 한울 성품으로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건마는 능히 그 성품을 거느리는 이가 적고, 누구나 집에서 살지 않는 이가 없건마는 그 집을 잘 다스리는 이가 적으니, 어찌 민망치 아니하리오.

성품을 거느리니 한울이 있고 집을 다스리니 도가 있는지라, 어찌 한울과 도가 멀다 하리오. 그러므로 한울은 만물을 낳고 도는 일을 낳나니, 어찌 물(物)과 일이 또한 멀다하리오. 물은 일을 낳고 일은 먹는 것을 낳는지라. 어찌 일과 다만 밥을 또한 멀다 하여 어길 바리오. 이러므로 한울이 없으면 생함이 없고, 생함이 없으면 먹는 바 없고, 먹는 바 없으면 일이 없고, 일이 없으면 도가 없을지니라.

이런고로 한울은 화생하는 직분을 지키므로 잠깐도 쉬고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한울이 일부 일각이라도 쉬게 되면 화생변화지

도가 없을 것이요, 사람이 또한 일용지도를 잠시라도 떠나게 되면 허령창창한 영대가 가난하고 축날 것이라. 이리므로 수고롭고 괴롭고 부지런하고 힘쓰는 도는 금수라도 스스로 지키어 떠나지 않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이것을 저버리며 떠날 바리오.

두려워하고 삼가함은 더욱 군자의 절중함이라. 군자는 능히 이 사단을 지키어 천도를 순히 함이니, 어찌 삼가지 아니하리오. 대저 천도가 여기에 지날 바 없는지라, 삼가 지킬진저!

우리 대선생님께서 경신 사월 초오일에 강령지법을 지어 사람으로 하여금 한울님 모심을 알게 함이요, 한울님 모심을 알면 가히 써 한울님 말씀함을 알지라, 어찌 의심할 바 있으리오. 사람이 이것을 다 지키면 수심정기 할 것이요, 만일 지키지 못하면 배천 역리함이라.

한울은 사람에 의지하여 변화가 무궁하고, 사람은 밥에 의지하여 만사를 행하는지라, 어찌 도를 멀리 구하며 능히 근본을 깨달아 지키지 아니하리오.

모름지기 사람마다 신령한 마음이 있어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수족이 있어 능히 동정함으로써 만사를 능히 다하여,

마시고 먹고 입는 바는 도시 다른 바 없건마는 그 근본을 알아 지키는 것이 적으므로, 한울을 등져서 영대가 혼미하고 진실로 한울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지라.

군자는 이것을 능히 알고 순히 지켜서 잠시라도 떠남이 없으므로, 영대가 한울같이 신령하고 그 밝음이 일월같고 그 앎이 귀신같아서,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일월로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고 귀신으로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할지라.

근래에 들으니 혹 입도한 지 수삭이 못되어 발령이 되어 스스로 아는 바 있어 능히 도를 통하였다 하니, 진실로 민망하도다. 이같이 발령이 속히 되는 것은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한울님의 가르침을 알게 함이니라.

이와같이 한울님이 가르치시는 이 운수에, 만일 실상을 알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능히 천지로 더불어 조화를 운용할지라, 삼가 지켜 어기지 말지어다. 만일 우리 선생님의 도가 아니시면 어찌 창생을 건지리오. 이러므로 오직 「수명을랑 내게 비네」 하신 것이라.

방금 성령이 현세하여 밝음이 엄숙한지라, 능히 근본을 알아 지키

는 데에는 선생의 밝은 도로써 명하여 가르치심이 있어, 홀로 묘연한 사이에 받음을 알 터이요, 만일 이 이치를 어기는 사람은 만일지공(萬日之功)이 있어도 한울님과 스승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못할 터이니, 진실로 애석하도다.

이 몸은 선천이기(先天理氣)로 화생함이요 이 마음은 후천이기(後天理氣)로 받음이라, 이렇고로 세상사람이 한울님을 모시지 아니함이 아니언마는, 후천운수를 알아 지키지 아니하면 한울이 간섭치 아니하는 바, 한울이 간섭치 아니하면 오직 사람의 중함으로도 놀다가도 죽고, 자다가도 죽고, 섰다가도 죽고, 앉았다가도 죽을지라, 이와 같이 죽음이 무상한 것은 그 간섭치 아니함을 반드시 알지라. 만일 지키는 사람도 이 운수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설령 정성이 지극할지라도 한울이 간섭치 아니할 터이니 깨닫고 생각하라.

이렇고로 「한울님께 복록정해 수명을랑 내게 비네」 하신 바라. 복록은 의식이라 의식은 선천후천이 다른바 없는지라, 밥은 한울님 은혜를 생각하고, 도는 스승님 은혜를 생각할 것이니, 삼가 파혹하여 대도를 순성하라. 은혜를 생각한다 하여도 그 근본을 알아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어찌 한울님의 감동함이 있으리오. 실상을 알고 지키어 대도 견성하기를 바라노라.

사인여천 (事人如天)

사람이 곧 환우이니
사람 섬기기를 환우같이 하라

주최·주관  천도교중앙총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우)03147
www.chondogyo.or.kr e-mail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